

기고



강순팔 호순균의회 전 의장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소망한다. 가정이란 울타리를 만들 때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꿈꾸지만 고단해지는 삶에서 첫 마음은 퇴색된다.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도 차츰 멀어진다.

우리는 오랜 세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다.

가정폭력이란 단어를 알면서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란 말에 속아 유아무야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러는 사이 부부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가정폭력은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는 4대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다. 그만큼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가정폭력이란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했다. 우리 경제 살림이 좋아져서 외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내적인 발전은 미약하여 보여 주기식 일상에 길들여졌다. 소원도 부부란 말이 있다. 실제로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남의 눈을 의식하여 사이가 좋은

것처럼 이미지를 관리하는 부부를 말한다.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의 불행한 결혼생활이 공개될 때마다 우리 일반인들도 설마하며 믿지 않는다. 하지만 불행한 가정사 이야기는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물론 부부간의 이야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등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학대 등으로 다른 가족원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은폐되고 반복 순환된다는 것이다. 세

대간 전이와 폭력이 대물림 되는 끔찍한 일도 발생한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은 자녀들에게 적응장애나 행동장애를 동반하게 한다. 그 결과가 학교폭력으로 전이되면서 결국은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또한 자녀에게 휘두른 폭력이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현상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자녀가 나이 든 부모를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일도 생기면서 기존의 윤리와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경제적 학력 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한 몫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분명히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고 잘못 인식되어 있다. 가족 간의 일이라 주위에서 신고하는 일도 싶지 않다는 것을 가해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이기도 하다.

피해 여성이나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문제가 돌출된다고 해도 가정구성원 사이의 문제로 선처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 보니 범죄로 발생했을 때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불거진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일로 치부하는 사회의 인식이 가정폭력을 예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 가정폭력을 해소하는 방안을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사회범죄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가정폭력의 뿌리를 뽑아야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가정폭력 문제를 위해 끝

없이 노력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홍보를 통해 경찰검찰·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폭력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가해자에게 관용이 아닌 법적으로 좀 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

가정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근간이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정폭력에 대응하여 제도적인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피해자의 원치 않은 처벌 등은 곤란한 일이며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해 가정이란 안식처가 필요할 때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처럼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듯이 가정이 행복하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만연된 사회문제 또한 해결될 것으로 본다.

기고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코로나-19와 산림 일자리

10년, 20년이 지난 후 사람들이 2020년을 어떻게 기억할까? 지금의 부모세대들이 1997년을 IMF로 기억하듯 2020년은 아마도 코로나-19로 기억 될 것이다. 2020년이 코로나-19라는 한 단어로 설명이 될 만큼 코로나-19는 2020년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이 호흡기 감염질환 바이러스는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 될 때 전염되며, 감염되면 약 2~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 이상)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과 폐렴을 유발

하는데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무서운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바꾸어 놓았는데, 휴교령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 집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을 통해 화면속에서 학우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보고 있다. 축제는 열리지 않고, 거리와 공원은 한산해졌으며 사람들은 악수 대신 주먹치기로 인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활동의 저하는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을 위축시켰고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이에 따

라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특히 저소득 및 취업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훨씬 더 커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산림에 그 해답이 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등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약 8천여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을 통해서도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

에게 산림의 공익기능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산불과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산림은 코로나로 우울감에 젖은 국민들에게 상쾌한 공기를 제공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산림일자리로 통해 참여자들은 이러한 산림의 가치를 직접 누릴 수 있는 기회뿐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제공받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겪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까지 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산림일자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산림이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가 되어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고을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